

“산길 휠체어 밀어주며 금방 친구됐어요”

“비록 휠체어를 탔지만 푸른 숲길을 거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친구들과 정말 큰 선물을 받고 갑니다”

25일 편백나무 숲 사이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장흥군 장흥읍 억불산 자락에 선우학교와 신광중학교 학생 300여 명이 ‘특별한 날들이’에 나섰다.

(사광주학교(교장 송갑석)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주최한 ‘2014 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장흥 편백나무 숲길 탐방’을 위해 모인 것이다.

첫 만남이 낯설 법도 하지만 2인 1조로 짝을 이룬 신광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반갑게 인사를 마친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숲 속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느 정도 산길을 오르다 보니 능숙한 솜씨로 휠체어를 끄는 남학생 두 명이 눈에 들어왔다. 한 명은 뒤에서 휠체어를 밀

산림청 주최 ‘장애·비장애 청소년 지역 명산 체험’ 가보니

광주 선우학교·신광중 학생 300여명 장흥 억불산 자락 편백나무 숲길 탐방 “시원한 바람 쐬며 예쁜꽃도 보니 행복”

어주고 나머지 한 명은 앞서가면서 흑시 모를 장애물을 살피는 모습이 정답다.

지난 4월10일 첫 번째 지역 명산 체험에서 은혜학교 학생들과 무등산 탐방을 한 경험이 있다는 김세웅(14·신광중 1년)군은 “산길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며 “오늘도 친구들과의 안전한 산행을 책임지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장흥 우드랜드 편백나무 숲 탐방로를 따라가던 학생들이 세계건축-미니어처 공원 부근에서 멈춰섰다. 편백나무로 만든 이집트의 스피크스, 네덜란드 풍차 등 조

형물 뒤로 약 420㎡ 규모의 하얀 구절초밭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안혁진(18·선우학교 고등 1년)군은 울창한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구절초를 비추자 박수까지 쳐가며 흥겨워 했다. 안군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힘들다”며 “우리 친구들 덕분에 시원한 바람도 쐬고 예쁜 꽃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 옆에서 안군의 손을 잡고 있던 신광중 1학년 김정훈(14)군은 “처음엔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역진이 형

의 순수한 모습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옆에서 밝게 웃는 형을 보니 뿌듯하다”며 미소를 보였다.

교사와 안전요원들의 도움으로 2시간 가량 이어진 산행은 장흥읍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하늘데크 산책로에서 마무리됐다. 하산하던 이화준(20·선우학교 직업반)군이 근처 음수대에서 따온 물을 김의혁(14·신광중 1년)군에게 뿌렸다. 이를 지켜본 주위의 다른 친구들도 합세하면서 한바탕 물장난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난 이들은 돌도 없는 친구사이가 된 듯 보였다.

조강인(41) 선우학교 교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야외활동은 흔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짧은 시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직접 몸을 맞대며 어울리는 순수한 모습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25일 오전 장흥 편백나무 숲길에서 ‘2014 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 체험’에 참가한 신광중학교와 선우학교 학생들이 짝을 이뤄 숲길을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병무청 “전방부대 입영 장병·가족 불편 줄여라”

입영 통지서에 부대 약도 안내
각급 사단과 셔틀버스 운행도

내년 1월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12월 중순부터 입영 통지서(입대 영장)를 보내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신병 직접 입영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광주일보 9월 25일자 6면 참조〉

기존 306 보충대를 통해 입대했던 전방사단은 접근성이 열악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부대로 직접 입영하는 장병에게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우선 입영통지서(입대 영장)에 각 부대의 약도와 교통편,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 방식 변경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사단은 입영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셔틀 버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만에 무죄 확정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제’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교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3 몰림 07:59
해질 18:24 달림 19:28

세차하기 좋은 주말!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8/27	보성	구름많음	15/25
목포	구름많음	18/25	순천	구름많음	19/26
여수	구름많음	20/24	영광	구름많음	16/26
나주	구름많음	15/27	진도	구름많음	16/25
완도	구름많음	18/25	전주	구름많음	17/26
구례	구름많음	16/26	군산	구름많음	17/25
강진	구름많음	16/26	남원	구름많음	15/25
해남	구름많음	16/26	속산도	구름많음	19/23
장성	구름많음	15/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파고(m)
서해	북동~동 0.5	동~남동 0.5
남해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24	03:13
	20:43	15:35
여수	밀물	썰물
	10:07	03:42
	22:17	16:07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30(화)	10/1(수)	2(목)	3(금)
17/26	15/27	17/25	15/24	14/24	13/25	15/25

생활지수

	식중독	60
	운동	50
	빨래	90

광주지역 고교생 불거리 극성

올들어 802명 감염...수능 앞둔 고3 비상
일부 학교 등교중지...손 씻기 등 예방 당부

수능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불거리(유행성이하선염)가 성행하고 있어 고3 수험생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불거리에 감염된 광주지역 고등학생은 802명이다. 이는 지난해(376명)에 비해 213% 급증한 수치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불거리가 극성을 부리면서 6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대동고가 18명, 문성고 15명, 서석고 6명, 전남고 4명, 제일고 3명, 금호중영양고·보문고·살레시오여고·석산고 각 2명, 풍암고·광광고·조대여고 각 1명 등 총 12개 학교에서 57명이 불거리 치료를 받고 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불거리에 걸린 광주 고등학생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995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광주대동고등학교에는 25일 현재 불거리 발생자 18명 가운데 15명이 3학년생이다. 지난 5월 초순께 20여 명이 불거

리 증세를 보인 후 방학이 지나 현재까지 40여 명이 불거리 판정을 받았다. 3학년생 가운데 7명은 고열, 두통 등을 호소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증상이 미미한 8명은 격리조치해 자습을 시키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고3 수험생 전원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전 학급을 소독하고 ▲수업이나 휴식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 ▲급식 때는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도록 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도 현재 1학년생 3명이 고열, 두통 증상을 보여 등교중지 조치했다.

한편, 불거리는 공기나 침에 의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잠복기는 2주 정도로 고열과 구토, 두통 증상이 나타나며 5일 동안 격리조치 치료를 해야 한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문의062
264-7789

시행 | 주 | 심산건설 시공 | 주 | 구산건설

전 세대 남향배치

전용면적 59㎡
228세대

10월17일 OPEN

- 입주전 베이커리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풍향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식욕실 (안방)
- 애완견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방2개 및 주방 확장형
- 안방 불박이장 설치

용봉동 도나우타운 현장

북부경찰서 광주현대병원

비엔날레 롯데하이마트 용주초등학교

농협 전남대학교

광주은행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도나우타운 모델하우스

용봉초등학교 전대사거리

MH 전대사거리 모아엘가 주택전사관 2층